

한영교회 온가족예배

11/20(월)~25(토)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우리 가정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악인이 형통하게 보일 때

[요기 15:17-35]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15:17-35]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악인이 잘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지혜로운 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가르침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비롯된 중요한 것이기에 주의 깊게 들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가르침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삶과 경험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배워야 할 참된 지혜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악인의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늘 두려운 소리를 듣고, 갑자기 공격당할 것입니다. 늘 갈급해하며 날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몰려올 것입니다. 악인의 인생이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실상은 두려움과 궁핍입니다.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졌어도 그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산해진미를 먹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갈급함과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달리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3. 악인은 결국 멸망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결국 허무한 것으로 보응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힘과 부를 의지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입김으로 그를 불어 버리십니다. 그의 재산은 보존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장막은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이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눈에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은 그 행위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마땅히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에 각 사람의 행위가 그 앞에서 낱알이 드러날 것을 기억하십시오.

- 나눔**
1.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까?
 2. 나의 삶보다 악인의 삶이 부요한 것처럼 보여 속상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고통의 참된 해결

[요기 16:1-17]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16:1-17]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의 조언이 고통만 가중시키고, 스스로 어떤 위로를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고통과 번민
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같이함 아는 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심방하러 온 성도들이 그분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 같이 아파하기보다 그 병에 걸리도록 자기 관리를 안 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심지어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며 기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분이 바란 것은 위로
였는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분석과 비판의 잣대만 들이대면 우리의 삶은 삭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상황을 예단하고 그에 따른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만 다치게 할 뿐입니다.

2.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섭리 엄연히 고통이 있고 신자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부정하
는 미신적인 생각이 교회에 유포되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과 같은 것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긍
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몇 단계를 거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식의 저
급한 논리 역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증을 느끼는 환자에게 치료는 하지 않고 진
통제만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논리로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
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3. 사람의 말에 대한 의연함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이 복음을 모
르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형벌적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렇다 해도 인격적인 하나님
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고
통에 대해 선불리 말하는 것에 분을 품지 말고 의연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부당한 저주라고 해도 오히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으려고 하는 겸
손한 심령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나눔 1. 이전에 힘들거나 고통가운데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2. 주변에 고통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의연하게 살게 하소서.

고난도 감당못하는 자

[요기 16:18~17:16]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16:18-17:16]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은 때로는 절망을 때로는 자포자기를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신자의 마땅한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의로운 자의 보증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크게 낙심합니다. 친구들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누가 나의 보증인이 되어 줄까,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까 하고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정죄의 날카로운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죄를 받고 그것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이고 무릎의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참소합니까? 그때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8:1). 그분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2. 의로운 자의 삶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의 속담 거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그 길을 가야만 하며,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같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압박을 당합니다. 종종 의인으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고 싶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비난해도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손이 점점 힘을 얻을 것입니다.

3. 의로운 자의 소망 더 이상 아무런 계획도, 소망도 없는 욥에게 이제는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며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봐왔던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금세 사라지는 연기 같음을 알게 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굳게 붙들게 됩니다. 고난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눔 1.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힘겨웠던 경험을 서로 나눠봅시다.
2. 고난을 잘 견디다가도 힘들어져서 주저앉았던 경험도 나눠봅시다.

기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됨을 확신하며 의인으로서의 마땅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마지막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악인과 대조되는 길을 가는 신자

[요기 18:1-21]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18:1-21]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벌주신 것으로 여기며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죄에 대한 벌인가요? 그렇다면 회개하면 고난이 없어지나요?

1.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욥을 받으셨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욥을 책망하며 그가 깨닫도록 요구하는 그 진리를 빌닷이 깨달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욥이나 오해하는 빌닷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알아야 합니다.

2. 고난은 은혜입니다 빌닷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빛이 꺼지고 그들이 그물과 올무에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권력이 강하고 부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이미 하나님의 내 버려 두시는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된 우리는 주를 위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고난은 오히려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리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3. 고난은 영광입니다 빌닷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악인이 결국 이 땅의 장막에서 뽑히게 되고, 유향이 그 처소에 뿌려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의 모든 죄악된 삶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죄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 나눔**
1. 현재의 고난이 세상에서는 꺼짐이고 넘어짐이지만, 성도에게는 은혜의 통로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2.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기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의 은혜 아래 인도함 받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되신 하나님

[요기 19:1-29]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19:1-29]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모두 떠나고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신자 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할까요?

1. 뒤에 계신 하나님 욥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형제는 물론 친척, 친구, 심지어 아내까지 그를 정죄하며 다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의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조롱받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호소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시는 것 같아 더욱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뒤에라도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2. 밑에 계신 하나님 욥은 모두가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떠났을 때 오직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대속자 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욥을 낭떠러지로 밀어대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골짜기로 미는 것 같았으나, 욥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밑에서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종종 범 죄 할 때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참소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밑에서 떠받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확신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 위에 계신 하나님 욥은 그를 정죄하며 괴롭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위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증해 주시는 대속자 이시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고, 자신의 죄를 간과하며 형제를 정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혹시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 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통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 나눔**
1.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을 했거나 죄를 범한 지체를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2.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함께 하시며 의롭다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속한 것들

[요기 20:1-29]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20:1-29]의 말씀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의 말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비참함을 보면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세상의 탐욕은 죽이는 독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탐욕입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빼앗으며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그것으로 방탕한 삶을 즐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불의한 재물과 쾌락이 그 자신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과 즐기려고 하는 모든 것이 도리어 그를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불행하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세상의 탐욕과 즐거움에 마음이 가지는 있습니까? 항상 조심하며 자신을 죽이는 탐욕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의 쾌락은 만족이 없습니다 악인은 왜 재물을 그렇게 모읍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소유하고 그 재물을 마음껏 쓰면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절대 평안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 “무소유”를 주장하겠습니까? 불신자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도 결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할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피하십시오.

3. 세상의 불의는 멸망을 부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행에 형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재난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에 갑자기 맞듯이 불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의 삶을, 악인의 존재를 꿰뚫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태울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의와 거룩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눔 1. ‘악인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 나의 죄 된 행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